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3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문화특강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40 아침연속극 (미쓰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교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본종은날	20 좋은아침
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55 TV동화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00 문화이색	40 SBS 뉴스
00 즐겨찾기 55 비르날 교우말	00 지구촌 뉴스 20 TV특강(재)	11 00 문화이색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재)	12 00 MBC 뉴스 25 시추이션 휴먼다큐, 그날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
00 KBS 골격전 (재방송 김탁구)(재)	40 영성출판 신(재)	1 05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재)	30 중계방송 세계 검출총장 회의 개최식
00 KBS 뉴스 10 2011 내셔널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10 다큐 시대(재)	2 05 MBC 스포츠 2011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00 SBS 뉴스 10 한나리영 대표 최고위원 경선토론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도시탐험대-대구)	00 KBS 뉴스타임 05 다오베찌 불꽃대소동(재) 35 오토 마을 뽕뽕 친구들	3 0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50 MBC 뉴스	00 마법의 별 매제네이션2 30 트릭타고 세계여행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 릴레이	4 00 재능 무한대 베스트 30 에그보이 코쿠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5 00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재)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00 생생 정보통	6 00 6시 뉴스메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호루라기	7 45 일일 시트콤 <몽양 내 사랑>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드라마 <로맨스 타운>	8 15 일일 연속극 <불굴의 여신님> 55 MBC 뉴스데스크	55 드라마 스페셜 <시티헌터>
00 역사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9 55 수목미니시리즈 <넌 내게 반했어>	
00 KBS 뉴스라인 40 현장로동 여행	05 200회 특집 해피투게더	10 05 MBC 50주년 특별기획 다큐 <타임>	15 스타부부쇼 자기야
25 KBS 뉴스 콘서트 필드?	35 TV 특강	11 00 MBC 뉴스 24 10 MBC 100분토론	45 나이트라인

서지석·윤계상·크리스탈...‘하이킥 3’ 기대만발

인기배우·아이돌 출연 막강 웃음코드 9월 초 방영



<서지석>

배우 윤계상과 서지석, 그룹 에프엑스의 크리스탈이 하반기 방송가 화제의 시트콤 '하이킥 3, 짧은 다리의 역습(가제)'에 출연한다. 제작사인 초록밴 미디어가 29일 오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출연진 명단에 따르면 앞서 캐스팅이 확정된 배우 안내상과 윤유선이 부부로 호흡을 맞추고 윤계상과 서지석이 윤유선의 남동생으로 출연, 각각 공중보건의와 체육교사 역할을 맡는다.

윤계상은 최근 드라마 '최고의 사랑'으로 인기를 모았고 서지석은 드라마 '글로벌리아'와 '매니'에 출연했다.

이밖에 '시크릿가든'에 출연한 신인 이종석과 가수 크리스탈이 안내상 부부의 자녀로 출연하고 이종석의 친구로 '슈퍼스타K 2'의 강승윤이 나온다.

그를 몰라 출신의 고영욱, 개그우먼 박지선, 배우 줄리엔 강, 박하선, 김지원, 백진희 등도 '하이킥 3'에 합류했다.

'하이킥 3'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뚫고 하이킥'을 연출한 김병욱 PD의 신작으로 방송계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서 2편의 '하이킥' 시리즈가 신인의 스타 등용문이자 기성 연기자들의 제2 전성기를 위한 발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하이킥 3' 오디션에는 500여명이 몰렸고 인기 배우부터 아이돌 그룹까지 치열한 물밑



<윤계상>

작업이 벌어졌다. 김병욱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이번 시즌은 87억1천만원에 MBC와 '하이킥 3'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초록밴 미디어 김승욱 부사장은 "'하이킥' 사단이 다시 뭉친 만큼 새로운 웃음코드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킥 3'은 '뽕뽕 내사랑' 후속으로 9월 19일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임재범 콘서트 '나치' 퍼포먼스 논란

가수 임재범이 콘서트 도중 '나치'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펼쳐 논란에 휩싸였다.

임재범은 지난 2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다시 태어난 거인'의 두번째 날 공연 무대에서 독일 병정을 연상시키는 제복을 입고 나와 퍼포먼스를 펼쳤고 이에 네티즌들이 '나치'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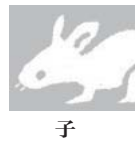
찬양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 문화평론가 진중권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임재범, 나치 의상 입고 히틀러 경례. '노 히틀러' '히틀러 이즈 데드' '하일 프리데'를 외치며 히틀러를 풍자하려 했다고, 그건 윤리적 비난의 대상 이라기보다는 미학적 비평의 대상. 그냥 '물취향'

이라고 하면 됩니다"라고 꼬집었다. 작곡가 김형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계산없이 그 무대에 어울리는 소재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 것 뿐인 것 같은데요"라고 반박했다.

김형석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임재범 씨는 무대에서 군복을 벗어던져 오히려 나치즘에 대한 반역적인 퍼포먼스를 했다. 방송도 아닌 공연장에서 한 이벤트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0일(음 5월 29일 丙辰)



36년생 식구가 늘어 날 수니, 가정의 경사로다. 48년생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 60년생 장애물이 사라지고 뜻하던 바를 이루게 된다. 72년생 부부간의 싸움이란 갈로 물 베기다. 84년생 친구 관계에서 이성 관계로 바뀐다. 행운의 숫자 : 54, 98



37년생 만사가 뜻대로 되어 간다. 49년생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두렵다. 61년생 기계적 분야를 다룬다는 것 만으로도 희망차다. 73년생 미운 자식 딱 하나 더 주는 이치다. 85년생 눈에 콧카지가 썩었구나. 행운의 숫자 : 06, 30



38년생 책임이 큰 직책을 맡았다. 50년생 병정한 선택을 해야 할 갈립이다. 62년생 참혹했던 과거의 상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74년생 밤을 잘 꾸어거든 밤의 굴에 들어가야. 행운의 숫자 : 50, 78



39년생 특별히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게 좋다. 51년생 어떻게 추진해 나가든지 무리가 없었다. 63년생 큰 자신을 자신이 자유롭게 운용한다. 75년생 상대가 자신에게 배려하고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39, 45



40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52년생 많은 고민을 해왔던 집안 일이 순풍에 돛 달듯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64년생 벽에도 귀가 있느니라. 76년생 음주 운전은 자신과 남을 모두 망치게 한다. 행운의 숫자 : 64, 12



41년생 신앙 생활에 충실하거나 학문 연구에 몰입하게 된다. 53년생 낯선 사람의 꿀에 넘어가지 않아야겠다. 65년생 번쩍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77년생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취직된다. 행운의 숫자 : 20, 49



42년생 여대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나았다. 54년생 중차대한 계약이 성립된다. 66년생 보리 오면 오이 안주라? 매사는 상대적. 78년생 활동성이 요구되는 외근직으로 전보되었다. 행운의 숫자 : 93, 59



43년생 밤마다 만리장성만 쌓는다. 55년생 중지를 모아야 한다. 67년생 불심검문을 받거나 신원조회 대상자가 된다. 79년생 밤상하다가는 덩터기 쓸 일 있다. 행운의 숫자 : 25, 34



44년생 신상에 관하여 상대에게 자세히 얘기한다. 56년생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굶는다. 68년생 만성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80년생 사람의 인연이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행운의 숫자 : 68, 19



45년생 오래된 일이 이제야 처리되었다. 57년생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말은 삼가야 한다. 69년생 다중을 상대로 말을 많이 하게 된다. 81년생 업무상의 수치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0, 72



46년생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일 수 있다. 58년생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 70년생 순발력 있는 대처가 절실하다. 82년생 삶이란 치열한 노력 끝에 성공의 결실을 보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15



47년생 여대 의문시했던 바를 스스로 깨닫는다. 59년생 공석에 대한 허마평에 오르겠다. 71년생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83년생 승강기가 고장 날 수도 있는 날이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35, 92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EBS

06:00 선택! 직업과 진로	09:55 레온	15:3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9:35 스톱 호크
06:30 극한직업	10:05 최고의 요리비결	15:50 찾아봐요 제스와 함께	20:00 동물일기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이미정 일석이조 밥상차리기>	16:00 덩동영 유치원(재)	20:30 EBS 뉴스
07:10 쿠퍼 스텝	10:30 60분 부모	16:20 충동 원더맨	20:45 지식채널⑥
07:35 꼬마기자관찰 토미스와 친구들	11: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16:45 방귀대장 뽕뽕(재)	20:50 세계대사(재)
07:45 뽕뽕뽕 뽕뽕	12:00 EBS 정오뉴스	17:00 꼬마버스 타이거	<중원의 별 중국 후난>
08:00 덩동영 유치원	12:10 TV일화시정관	17:15 키득키득 실험실(재)	21:30 한국기행
08:20 캐니멀	13:00 세계대사(재)	17:25 한글기차 치료(재)	21:50 요리 프리덤
08:35 키득키득 실험실	<시원하의 미국 남서부 기행>	17:35 똑똑똑똑 밥이(재)	<원더풀 사이언스>
08:45 한글기차 치료	13:40 한국기행	17:45 캐니멀(재)	22:40 극한 직업
08:55 꼬마버스 타이	14:00 다큐프리임	18:00 생방송 퓌! 북나해니	23:10 하나뿐인 지구
09:10 방귀대장 뽕뽕이	<원더풀 사이언스>	18:50 와글와글 친구들	00:00 지식채널⑥(재)
09:25 똑똑똑똑 밥이(재)	14:50 스킨 한국어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0:05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09:35 출동! 소방관 샘	15:20 뽕뽕뽕 뽕뽕(재)	19:10 쿠퍼 스텝	00:35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4:10 EBS 포스 (비문학)	13:00 수능특강 <이화명의 세계사>	08:00 교원 임용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 내용 탐방
05:00 수능특강 <박복의 정치>	14:00 <민법권의 경제지리>	08:30 경부(지도사 시험대비) 강좌	3-1 (과학)
05:50 <송기택의 윤리>	15:00 EBS탐사련 <공정원의 수확(하)>	09:00 중학 3학년 <영어>	15:50 <4-1 (과학)>
06:40 <(O)이영의 외국어영어>	16:00 <최선목의 지구과학 I>	09:40 <국사>	16:20 <5-1 (과학)>
07:30 EBS 탐사련 <최경식의 한국근현대사>	17:00 기본과 특별한(재)	10:20 중3 퍼펙트 체크업 (과학)	16:50 <6-1 (과학)>
08:20 EBS탐사련 <함보연의 사회문화>	18:00 <영문법 즐겨찾기>	11:00 Magic 중학영문법 Level 2	17:20 <6-1 (역사)>
09:10 <한보라의 윤리>	19:00 수능특강 <송정석의 생물 II>	11:40 수학의 원리 미메(미타)기(재)	17:50 중학 1학년 <수학 1-1>
11:20 내신6급 <정승제의 수확(하)>	20:00 <한필규의 지구과학 II>	11:50 중학 2학년 <비문학2>	18:30 <과학>
12:10 수능특강 <박진영의 지구과학 I>	21:00 <정진선의 물리 I>	12:30 <도덕>	19:10 중2 퍼펙트 체크업 <수학 2-1(재)>
	22:00 <정진선의 물리 I>	13:10 중학 3학년 <한문>	19:50 중학 2학년 <비문학2(재)>
	23:00 <신승진의 세계지리>	13:50 중학영어특해 Level 3	20:30 <도덕(재)>
		14:30 초등 6학년 영어 Ready Set Go	21:10 중학 3학년 <영어(재)>
		14:50 EBS 클럽클럽	21:50 <국사(재)>
		15:10 수학의 원리 미메(미타)기(재)	22:30 중3 퍼펙트체크업 (과학)(재)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워	오하오우 니혼고
<p>누룽밥(X) 누룽지(X) → 눌은밥(O)</p> <p>'하늘 천 따 지 가마솥에 누룽밥 딱딱 굽어서 선생님 한 통 나한 통'</p> <p>천자문을 흔히 재미있게 풍자해서 읊는 말이다.</p> <p>또 우리 속담에 '비빔밥 설거지 머느리 시키고 누룽밥 설거지 딸 시킨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쓰인 '누룽밥'은 모두 '눌은밥'으로 써야 바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천 따 지 가마솥에 눌은밥 딱딱 굽어서 선생님 한 통 나한 통' '비빔밥 설거지 머느리 시키고 눌은밥 설거지 딸 시킨다'가 바른 표현이다.</p> <p>또 식당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아주머니, 고소하고 맛있는 누룽지도 주세요" 라는 말도 "아주머니, 고소하고 맛있는 눌은밥도 주세요"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p>	<p>I'm not sure I can agree</p> <p>그럴 것 같지 않네요</p> <p>A : I'm afraid we can't increase salaries this year. Money is just too tight.</p> <p>B : I'm not sure I can agree.</p> <p>A : Why not?</p> <p>B : Surely there are other ways to save money?</p> <p>A :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ve tried everything!</p> <p>A : 유감스럽지만, 올해는 봉급인상이 어려울 것 같네요. 자금사정이 정말 너무 팍팍해.</p> <p>B : 그럴 것 같지 않네요.</p> <p>A : 왜 아니야?</p> <p>B : 틀림없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p> <p>A : 무슨 소리야? 모든 조치는 다 시도했잖습니까?</p> <p>* Surely there are other ways to save money? = There must be other ways to save money? = Can we look for other ways to save money? = Aren't there any other ways to save money?</p>	<p>马蜂窝 mǎ fēng wō</p> <p>벌집 건들다</p> <p>말벌(马蜂) 집(窝)입니다. 우리말에 '벌집을 건들다'라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벌 것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중국어에서는 '말벌 집(马蜂窝)'은 관용어로 쓰여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까다로운 일에 쓰입니다. (她这个马蜂窝谁都不敢惹-그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p> <p>벌에 쏘여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벌집을 건들게 되면 그 건든 놈을 찾아 벌들이 일제히 공격을 한다고 하네요. 한 마리가 20~30여 차례의 침을 쏠 수 있는데, 열 마리만 나와 공격해도 몇 백 마리의 공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벌집을 안 건들어서는 최선이겠지만, 일단 건드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도망가기 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피할 수 있는 낮은 지역이나 그늘로 들어가 엎드리라고 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몸을 흔들면 더 쉽게 노출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p>	<p>馬の耳に忿怞だよ。</p> <p>소귀에 경 읽기야</p> <p>A : 息子は俺の言うことをぜんぜん聞かない。</p> <p>B : もっと大きく聞いたら、親の心が分かるだろう。</p> <p>A : 耳にタコができるほど、言い聞かせたのに。</p> <p>B : 今は馬の耳に忿怞だよ。俺達も同じだったんじゃない。</p> <p>A : 아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아.</p> <p>B : 더 크면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p> <p>A :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이렸는데.</p> <p>B : 소귀에 경 읽기야. 우리들도 그랬지 않았어.</p> <p>[단어정리]</p> <p>大きく 성장하다</p> <p>耳にタコができる 귀에 못이 박히다</p> <p>言い聞かせる 타이르다</p>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